

# 胎教에 對한 文獻的 考察

전진우\*, 이호승\*\*

大韓醫療氣功學會

## I. 緒論

胎教란 妊娠期間은 물론 妊娠 前부터 父母가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합하여 受胎前(약 100일), 受胎時, 受胎中(1~10개월 사이)에 出生될 아이를 위해 하는 모든 教育 活動을 의미한다. 그러나 現代에 와서는 教育을 出生 以後 즉 乳兒期나 幼兒期, 兒童期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認識하여 胎兒期 시절에 대해 전혀 無關心하며 後天的 教育에만 노력을 하는 실정이다. 薛景成씨는 “胎兒때의 教育은 인간 일생을 통하여 가장 旺盛하며 急速하다”고 주장했으며 《胎教新記諺解》에서는 “아버지는 낳고(生), 어머니는 기르고(育), 스승은 가르치는 것이 모두 같은데 다만 病을 잘 고치는 醫師는 病에 걸리기 전에 잘 治療하고, 가르치길 잘하는 사람은 낳기 전에 잘 가르치기 때문에 先生(스승)에게 10年 배운 것이 어머니가 뱃속에서 열달을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어머니가 열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하루에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胎教의 重要性을 얘기했으며, “보고 듣는 것을 삼가고 마음을 바로 하여 君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나 열달의 수고가 꺼려서 小人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胎教의 責

任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sup>1)</sup> 現代에 사는 우리는 生活이 多様하고 複雜해지자 生命保存의 原則에 입각하여 快樂을 누리는 結果로 아무런 計劃性이나 마음의 準備가 없이 出産을 하는 경우가 많다. 健全한 母體에 健全한 胎兒가 誕生되듯이 母體가 주는 胎兒의 影響은 실로 크다. 사진기에 實物이 찍혀 나오듯 그대로 父母들의 心理狀態 行動作用에 影響을 받아 胎兒의 將來가 決定된다고 볼 수 있다. 옛부터 우리는 祖上의 精神的 遺産을 胎教라는 초기 人間教育을 통해 더욱 發達 시켜 왔다. 朝鮮時代 文化의 上層을 지배해온 兩大 思想인 佛敎와 儒敎에서도 胎內의 發達을 중요하게 여겨서 受胎, 胎兒觀, 胎教, 出産에 관한 기록을 남겨 後世에 전하고 있다. 胎教란, 豫防 醫學的인 生活哲學 혹은 求子法으로, 釋性愚 스님은 “보다 훌륭한 인간을 낳기 위한 어머니의 의지”<sup>2)</sup>라고 하였고, 유안진은 “妊婦가 胎中の 아기를 人間으로 形成 發達시키기 위한 教育的 努力”<sup>3)</sup>으로, 坂元正一은 “胎兒의 能力을 충분히 길러주기 위한 條件을 만드는 일”<sup>4)</sup>로 定義하였고, 인도의 聖者

\* 동국대학교 내과학교실  
 \*\* 원광대학교 생리학교실

1) 師朱堂完山李氏 : 胎教新記 諺解  
 2) 석성우 : 胎教, 서울, 白羊出版社, 1989, p.16  
 3) 유안진 :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 정민사, 1980, p.23

라즈니쉬는 “세상을 幸福하고 自由로운 世界로 만들고자 원한다면, 胎兒教育을 시켜야 한다.”<sup>5)</sup>고 제의하였다. 最近 西洋에서도 胎內環境의 重要性을 인식하여 모든 兒童이 身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健康한 出生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胎兒學(Embriology)이 發達되고 있다. 胎兒의 문제는 科學的인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關係 文獻의 內容을 분석, 검토하여 胎敎思想을 摘出해내는 方法을 이용했을 뿐 삶의 現象을 實證的으로 접근, 파악하지 못한 原理的 研究(Basic research)의 성격을 띄고 있다.

## II. 本論

### 1. 受胎前의 胎敎

受胎前의 胎敎는 受胎前 若 100日부터 受胎가 이루어지기까지의 胎敎를 말하며 이때는 일시적 快樂보다 마음의 準備와 受胎를 위한 健康과 修身이 필요하다. 受胎時에 는 마음의 姿勢와 날씨 및 周圍環境을 고려 해야 하며, 受胎中에는 內功法의 呼吸調節로 氣血循環을 잘 시켜 心身의 安定이 필요하며, 착한 마음가짐, 言語行動의 조심, 飲食調節, 藥物, 夫婦關係삼가, 情緒活動 등을 적절히 調整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受胎前에도 胎敎가 필요하고 중요한 까닭을 Good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였다. 즉 Good에 의하면 “環境이란 個人이 받을 수 있는 자극을 통해서 그 個人에게 영향을 주는 對象, 힘, 條件을 가리키는 一般的인 말이며 거기에는 內的 環境과 外的

環境이 있다”<sup>6)</sup>고 하였다. 胎敎에 있어서 內的 環境이란 胎母를 둘러싼 雰圍氣를 의미하며 外的인 環境이란 胎母를 둘러싼 物質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胎母는 주어진 內的 및 外的 環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環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家族이나 其他 주위 사람 의 努力도 필요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聖人들의 逸話는 受胎前의 胎敎에 대해 傳統的으로 얼마나 重要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준다. 孔子의 경우는 그의 父親 叔良訖이 尼邱山에서 훌륭한 아이를 낳게 해 달라는 기도를 百日 동안이나 드린 後에 受精하여 그를 受胎시켰다.<sup>7)</sup> 이것은 受胎前의 胎敎로 一心精氣를 한곳에 모아 精血을 맑게 한 후 修身하여 受胎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된 것이다. 설총의 경우는 新羅時代 유명한 元曉大師가 出家하여 修道하였던 중에 요석공주를 만나 一觸 卽發로 그를 낳은 것이다. 요석공주는 妊娠 時에 《觀音經》, 《승만경》, 《金剛經》을 외웠는데 그 理由는 아들을 구하는 마음에서였으며, 그는 “平生 소원이 天下에 으뜸가는 男子와 배필을 지어서 상감마마 다음가는 아들을 낳아 나라에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元曉大師에게 애원하였다.<sup>9)</sup> 이처럼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의 기원을 했으며 精氣를 맑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結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受胎前의 胎敎에 속한다. 中國 文王의 경우는

4) 上揭書, p.24

5) 석성우 : 前揭書, p.14

6) C. V. Good :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MO Graw - Hill Book Co. Inc., 1945, p.152

7) 李鍾切 : 永遠한 人間象, 서울, 新丘文化社, 1968, p.13

8) 申泰英 : 進明類聚, 충남, 충남서관, 李朝古書, p.6

9) 李光洙 : 元曉大師, 서울, 경향신문사, 단기 4289

그의 어머니 太任이란 분이 妊娠時에 눈으로 나쁜 色을 보지 않고 귀로 淫亂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입으로 방자한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세상에 나와 聖君이 된 것이다.<sup>10)</sup> 이것은 受胎中の 胎教에 속하며, 과연 太任이란 어머니의 努力의 代價이다. 栗谷의 경우도 그의 母親 申師任堂이 妊娠時 特別히 글을 많이 읽고 사색을 많이 했으며 胎夢으로 아이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sup>11)</sup> 《小學》에 옛부터 부인이 아이를 배면 잠자리도 바로 눕고, 가에는 앉지 말고, 더러운 자리에 앉지 말며, 눈으로 邪色을 보지 말며,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고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올바른 일만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2)</sup> 賢母良妻의 象徴인 유명한 申師任堂은 특히 受胎中の 胎教를 잘 했으므로 그러한 아들을 낳았다.

## 2. 受胎時의 胎教

方生方育은 天生地育이란 말이 되며 父生母育이란 뜻이다. 天干은 陽의 氣運이고 地支는 陰의 氣運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天圓地方이라 하여 陰陽의 調和로 萬物이 生成하며 사람도 역시 이와 같다는 의미이다. 《東醫寶鑑》에 보면 “사람이 사는 길 이 子息을 낳는 데 시작되고 子息을 낳는 일은 먼저 經度가 順調로와야 하는 데 每樣 婦人의 無刺한 것을 보면 그의 經度가 或은 먼저 하고 或은 뒤에 하며 或은 많고 或은 적으며 或은 장차 行하려 할 때 痛이 있고 或은 行한 뒤에 痛이 있으며 或은 紫色이 되고 或은 검고 或은 炎하며 或은 영겨서

고르지 않으면 血氣가 正常에 어긋나므로 孕胎하지 못한다. 求嗣의 道는 婦人의 經度가 고른 것을 要求하고 男子의 神이 足할 것을 斐求하며 또 感心이 적고 마음이 맑은 것이 上策이 되는데 感心이 적으면 망녕되어 交合하지 않으며 氣를 쌓고 精을 모아서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故로 子息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感心이 적으면 神이 完全하여 子息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年壽도 많아지는 법이다. 男子의 陽精이 微薄하면 비록 血海를 만나도 虛精이 흐르고 能히 子宮에 直射하지 못하는 故로 成胎하지 못하는데 대개 平時에 嗜感調節하지 못하고 射泄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마땅히 精元을 補하고 兼하여 存養을 工夫하여서 大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陽精이 充實함을 기다려서 때를 맞추어 交合하면 正確하게 된다. … 婦人의 陰血이 衰弱하면 비록 眞精을 射入하여도 能히 子宮에 包攝해 들이지 못하므로 交合하여도 孕胎하지 못하고 孕胎하여도 기르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男女의 配合이 반드시 그 나이에 適當하여야 하는 것이다. 無子한 婦人이 여위고 怯한 症은 子宮이 乾澁하므로 그러한 것인데 마땅히 陰을 불리고 血을 길러야 하므로 … 肥盛하여 몸의 기름이 子宮에 가득차서 넘치는 症은 마땅히 濕을 운행하고 痰을 燥하게 하여야 하니 … ”라 하여, 孕胎 以前에 兩親이 身體的 健康狀態에 있어야 하고, 心理的으로 健康해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受胎時의 胎教 期間을 約 100日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아이를 갖기 위한 마음의 기원 및 계획성
- ② 건강문제 해결 :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면
- ③ 착한 마음가짐

10) 金駿換 : 小學原本集註 內篇, 서울, 永一印刷所, 단기4289, p.2

11) 李殷相 : 師任堂과 栗谷, 서울, 성문각, 1973, pp.53,167

12) 金駿換 : 前掲書, p.3

- ④ 父母의 質(선택) : “그 內則, 曰凡生子, 折於諸母”<sup>13)</sup>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을 가질 때 父母를 잘 선택해야 한다.

### 1) 受胎時에 주의해야 할 것들

#### (1) 男女交合을 피해야 하는 날

- ① 丙日, 丁日, 弦望日, 그믐, 초하루
- ②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 ③ 안개가 많이 낀 날
- ④ 날씨가 몹시 추운 날이나 더운 날
- ⑤ 번개와 霹靂이 크게 치는 날
- ⑥ 天地가 晦冥하고 日蝕, 月蝕하는 날
- ⑦ 무지개 낀 날

이런 날은 地動하므로 人神이 損하여 不吉하며 男子는 百倍의 氣를 잃고 女子는 病을 얻어 子孫이 머리가 둔하고, 病이 많고, 壽命이 짧고, 不孝하고, 不仁해지기 쉽다.

#### (2) 男女交合을 피해야 할 장소

- ① 해와 달과 별빛이 비치는 곳
- ② 묘 祠堂의 우물, 변소, 부엌 棺 옆

만약 이런 곳에서 아이를 受胎하면 薄福하고 어리석으며 미련하다. 이것은 惡人의 惡靈이 胎中에 들어와 性品과 行動이 凶惡하고 家道가 막히므로 삼가야 하며, 이곳을 피하면 福과 德이 있고 智慧가 맑으며 善人이 胎中에 내려오므로 家道가 隆盛해진다.<sup>14)</sup>

#### (3) 受胎時 주의사항

- ① 초상집에 출입한 후 피할 것
- ② 소송관계에 있는 사람은 完結된 후에 할 것
- ③ 금전관계로 정신적 고민이 있을 때를 피할 것
- ④ 신체상 괴로울 때는 피할 것

- ⑤ 男女간 교통에 놀란 일이 있으면 약 2일간 피할 것

- ⑥ 男子가 다른 女人과 同寢했으면 8일간 피할 것

- ⑦ 분하거나 興奮시엔 안정된 다음에 할 것

- ⑧ 먼저 낳은 아이를 꾸짖었으면 2日 후에 할 것

- ⑨ 술에 醉했을 때 피할 것

- ⑩ 受胎時間을 너무 짧게 하지 말 것(아이의 壽命이 단축됨)

이상 列舉한 것을 基礎로 男女들은 受胎시킬 때 오로지 快樂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精神統一을 하여 雜念을 없애면 何等의 支障이 없다.<sup>15)</sup>

### 3. 受胎中の 胎敎

受胎中の 胎敎란 胎母가 아이를 妊娠하고 있는 期間, 즉 1~10個月 사이의 出產 以前까지 이루어지는 胎敎를 말하며 이 때는 胎母의 情緒的 心理的 상태가 胎兒에게 직접적인 影響을 끼칠 수 있는 其間으로 “子息을 가르친다는 것은 子孫을 깨우쳐 가르친다는 의미로 사람이 낳을 때는 母胎에서 10個月 동안 있기 때문에 그 容貌 性品이 어머니와 비슷하여 聖人의 胎敎를 말한 것은 진실로 이러한 理由에서 이다.”<sup>16)</sup> 라고 한 것은 반드시 胎母의 性品을 胎兒가 닮는다는 意味를 強調했다고 볼 수 있다.

《胎敎新記·諺解》에서는 胎敎의 重要性과 出生 後 아이에게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胎兒를 기를

15) 李東旼 : 심태태증교육, 서울, 연구사, 1973, p.100

16) 영가후인, 규범: 教子章, 서울, 세창서관(李朝古書); 教子敎誨子孫也, 凡人之生也在母胎十月故容貌性情多爲母相類聖人胎敎之說誠是矣

13) 金鞍換 : 前掲書, p. 3.

14) 許浚 : 東醫寶鑑, 內景篇 1卷, 서울, 남산당, p.605 ; 陰陽交合避忌

(育)에 있어서 삼갈 것을 삼가지 않으면 어찌 子孫이 재주가 있으며, 그 形色이 온전치 못하며, 질병이 심하고 落胎하거나 難産하여 비록 出生하여도 生命이 短折하나니 養胎함을 잃으면 精誠을 다하여 기를지니라, 하늘이 짓는 허물은 피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배어서는 血脈이 章運하고 呼吸에 따라 움직이니 기쁘고 怒함에 따라 子孫이 性情이 이루어지며, 보고 듣는 바에 따라 子孫이 後에 영향을 미치며 음식 먹는 것이 子孫의 삶과 피를 이루나니 어머니된 자는 어찌 삼가지 않으리오.”라고 하여 胎敎의 重要性을 말했다.<sup>17)</sup> “同類相親하고 同氣相感”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種類는 같은 곳으로 모이는 理致이다.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 光線이 필름에 傳達되는 것처럼 母體가 생각하는 靈明活動<sup>18)</sup>이 胎兒에 傳達되어 表面化된다. 그러므로 胎母는 각별히 受胎中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現實의 生活에 얽매어다 보면 胎兒에게 좋은 影響보다는 惡影響을 끼치기 쉽다. 金先生 資料提供에 의하면 出家한 子息에게 淸淨의 父親이 金錢을 잃고 딸에게 훔쳐갔다는 누명을 주었는데 그 딸은 자기는 下等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父親은 딸에게 疑心을 품고 있었는데 그 당시 딸은 아이를 受胎中에 있어서 胎兒에게 影響을 미쳤다고 한다. 그 女人이 受胎中에 金錢關係로 傷心했었는데 그 아이가 出生 後의 成長 過程을 보니 공부도 안 하고 고집이 세며 집에 있는 돈을 蕩盡하고 윗사람에게 反抗하는 性格의 아이가 되었다고 한다.<sup>19)</sup> 이것도 역시 受胎中 胎敎

에 속하겠는데 受胎期間, 즉 妊娠中에 마음의 타격을 받으면 안된다는 意味에서 그는 이러한 事例를 들어 胎中敎育을 重要視했다. 이 밖에도 飲酒後 만취되어 夫婦가 아이를 受胎시키면 그 아이는 대개 頭腦가 우둔하고 成長 運路에 있어서 心臟病과 五臟에 不治의 病을 가지게 되므로 못 남자들은 조심하고 修養이 필요하며 씨앗을 함부로 뿌리지 않도록 마음이짐을 잘 가져야 될 것이다.<sup>20)</sup> 이상 列舉한 臨床研究를 보면 受胎中의 모든 일이 사진기의 필름처럼 胎兒에게 찍혀 있다가 出生後에 影響을 받는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으며 受胎前이나 受胎時의 胎敎도 역시 重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胎敎新記》에 “人生의 性品은 하늘에 있고 氣質은 父母에게서 이루어지나 氣質이 偏勝하면 性이 가리워지므로 父母가 生育함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여 그 重要性을 말했다.<sup>21)</sup> 李東旼氏의 調査에 의하면 胎兒의 未來는 胎母가 妊娠中에 影響을 받는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며, 東洋的으로 보아 女子는 14~49살까지 男子는 16~64살까지를 受胎可能期間이라면 受精시켜줄 수 있는 기간을 先天的 影響, 婦人이 受胎하여 胎兒 出產時까지의 기간을 後天的 影響이 되어 이것이 교량역할을 하게 된다. 이 교량역할을 하는 受胎期間中을 가장 重要視하게 되는데 受胎日로부터 出生日까지 約 280日로 보아 하루 胎兒가 母胎 내에서 潛在하는 것이 108日, 1個月間이 生後 약 9個年을 支配한다고 하였다. 또한 受胎成長 行路와 出產 成長 行路가 相反된다는 것이며 平所受胎 外 空間은 모두 先天運으로 支配한다.<sup>22)</sup> 이

17) 師任堂 完山李氏 : 胎敎新記諺解, 경북, 以會堂, 昭和13, pp.24~28

18) 靈明活動 : 神, 魂, 魄이 潛在性에서 의식되지 않고 實際的으로 精神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19) 李東旼 : 前揭書, pp.106~107

20) 上揭書, pp.105~106

21) 師任堂 完山李氏 : 胎敎新記諺解, 경북, 以會堂, 소아 pp.13,24

22) 李東旼 : 前揭書, p.23

숫자 計算이야 어쨌던 胎兒에게 影響을 미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임신시절	출생후
수태후 ~ 1개월초사이	81살초 ~ 90살에 영향
임신1개월 ~ 2개월초사이	72 " ~ 81 "
2개월 ~ 3 "	63 " ~ 72 "
3 " ~ 4 "	54 " ~ 63 "
4 " ~ 5 "	45 " ~ 54 "
5 " ~ 6 "	36 " ~ 45 "
6 " ~ 7 "	27 " ~ 36 "
7 " ~ 8 "	18 " ~ 27 "
8 " ~ 9 "	9 " ~ 18 "
9 " ~ 10 "	출생후부터 ~ 9 "

표 11. 胎敎中の 일이 出産後에 미치는 기간(李東旼氏의 분류)

《東醫寶鑑》에 “胎孕之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즉 天地의 精氣가 萬物의 形態로 化하여 아버지의 精氣를 魄이라 하고 어머니의 精氣를 魄이라 하며 1個月에는 그 孕胎하는 것이 酪과 같고 2個月에는 열매와 같이 이루어지고 3個月에는 사람의 形象이 되고 4個月에는 男女로 나누어지며 5個月에는 筋肉과 骨格이 이루어지며 6個月에는 머리카락이 생기고 7個月에는 魄이 놀며 能히 바른손을 움직이며 8個月에는 魄이 놀며 能히 왼손을 움직이며 9個月에는 몸이 三轉하며 10個月에는 달이 가득하여 母子가 分解되며 그 중에서 날이 연기되어 늦게 낳으면 富하고 오래 살며, 달이 부족하여 일찍 낳으면 가난하고 賤하여 빨리 죽는다는 것이다. 上陽子가 말하길 사람이 처음 氣運을 받음에 있어서 9日로 陰陽을 大定하여 49日이 비로소 孕胎되는 것이며 그 후 7日이 一變하는 故로 만 360~296日 되는 자는 上器에 속하고 286日~266日에 낳은 자는 中器에 속하며, 256~246에 낳은 자는 下器에

속한다고 했으며 天干地支에 있어 天干의 甲은 반드시 己와 合하여 方生하는 것이며 地支에 丑은 반드시 子와 合하여 方育하는 것이며 스스로 天地의 德이 合하지 않으면 사람은 不生하므로 9個月에 神이 布하여 胎가 完全하게 되며 10個月에 壞胎하며 이것은 天地의 德이 氣와 合한 後에 生한 것이라 했다.

### 1) 受胎中の 유의사항.

#### (1) 氣血循環

氣血循環이란 한 마디로 呼吸으로 血液循環을 시키므로 心身의 安定을 돕는 運動이다. “氣者呼吸之根”이란 말이 있다.<sup>24)</sup> 즉 氣는 呼吸에 根本을 두어 心身의 造化를 시킨다. 現代 催眠術이나 心理療法, 요가법, 內功法<sup>25)</sup>에서도 이 呼吸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도 呼吸을 통해서만이 氣血을 淨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氣血循環을 시키는 방법으로 內功法에 의한 胎息法<sup>26)</sup>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랫배 下丹田으로 深呼吸을 하며 胎內에 있는 胎兒가 산소를 충분히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의미이다. 孫眞人이 말하길 “流水不腐, 戶樞不蠹”라 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열고 닫는 문은 좀이 썩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의 五臟六腑에도 산소공급을 충분히 시켜 氣血을 循環시켜야 한다. 《天仙地理》, 《性命旨》, 《東醫寶鑑》, 《黃庭經》을 보면 精氣神을 最高의 藥으로 여기고 있다. 精은 血液의

24) 上揭書, 內景篇 p.86

25) 金宗星 : 健康과 長生, 서울, 장문사, 1973, p.7; 내공법이란 육체적 운동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고 인체를 天地와 부합시켜 密閉된 五臟六腑를 운동시키므로 人間 최고의 靈源과 이상을 추구하여 靈明활동(靈明活動)을 생시에 지양하는 법으로 체계화된 수련법을 말한다.

26) 許浚 : 前揭書, 內景篇 p.87

23) 許浚 : 前揭書, 서울, 남산당, 內景篇 1卷, p.72

根本이요 血液의 淨素라고 보며 氣는 呼吸의 根本이며 36000신경을 周循한다. 神은 一身의 主人이요 精氣의 合體이므로 氣의 흐름은 細胞內의 독소와 邪氣를 배출하고 生氣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氣血을 循環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呼吸 運動이다.<sup>27)</sup> 몸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循環機能이 惡化되는데는 두 가지 形態가 있다. 즉 血管벽이 두꺼워지거나 굳어져 皮의 運搬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는 경우와 活動力의 缺乏, 不良한 姿勢로 인한 壓迫에 의해서 身體 어느 部分을 피가 자유로이 흐를 수 없는 경우인데 이 때 循環機能은 몸 전체에 萎縮된다. 이것을 血液循環에 의존치 않으면 각 部分의 細胞들이 營養素와 酸素의 供給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때로 가슴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오는 것을 經驗할 것이다. 이것은 密閉된 五臟에 한숨을 쉬어서 酸素를 넣어 주므로 시원함을 느끼게 하려는 自然스러운 상태이다. 이러한 呼吸을 좀더 效果的으로 하자는 意味이다. 달마대사는 健康法을 “吸砥撮閉”의 四句로 表現했는데 즉 마시고 삼키고 쥐고 닫으라는 뜻이며, 周易에는 “山澤通氣”라 했고 金剛經에는 “水山山水水山空”이라 表現했다. 여기서 通氣나 空은 呼吸을 말하며 氣의 흐름이다. 또한, RH인자를 가진 父母는 胎兒에게 影響을 미친다.<sup>28)</sup> 즉 “胎兒의 혈구가 胎盤을 넘어서 母體에 들어오면 母體는 이 抗原에 대한 抗體를 생산하게 되고 이 抗體는 다시 胎盤을 넘어 胎兒에게 돌아갈 때 胎兒의 적 혈구와 結合하여 파괴된다. 그러나, 혈구생산 능력이 미쳐 血구의 파괴를 막지 못할

때에는 胎內에서 貧血을 일으켜 死亡을 하든가 出生後 곧 貧血을 일으킨다.”<sup>29)</sup>고 한다. Pickles의 說에 의하면 1941년 Plater가 이미 이런 病을 記載 하였으며, 1892년 Ballantyne에 이르러서는 診斷의 基準이 이미 세워졌다고 한다.<sup>30)</sup>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血液에 관한 問題는 胎兒에겐 무엇보다 重要하므로 氣血을 安靜시켜 健康한 胎母가 되어야 한다.

## (2) 飲食物攝取 및 藥物使用

胎兒의 發育을 위해 胎兒는 胎兒成長에 필요한 충분한 養分을 섭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胎兒의 發育이 不良하다. 不淨한 음식물은 胎兒의 成長이나 낳은 후의 그 아이의 身體, 壽命, 精神上에 어떤 變化를 일으킨다고 婦人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習慣처럼 되어 있고 이 禁忌가 科學思想의 보급으로 感되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東醫寶鑑》의 飲食禁忌는 다음과 같다.<sup>31)</sup>

- ① 노새고기를 먹으면 難産한다.
- ② 개고기를 먹으면 子孫이 無聲하다.
- ③ 토끼고기를 먹으면 子孫의 唇이 갈라진다.
- ④ 비늘없는 고기를 먹으면 難産한다.
- ⑤ 방게(螃蟹)를 먹으면 胎兒가 옆으로 나온다.
- ⑥ 양(羊)의 肝을 먹으면 厄이 많다.
- ⑦ 닭고기나 계란에 참쌀을 섞어 먹으면 태아가 白蟲이 생긴다.
- ⑧ 오리고기나 알을 먹으면 胎兒의 발가락이 오그라지며 마음이 차게 된다.

29) 이삼열 : RH因子에 인한 胎兒赤芽證에 流行된 韓國最初의 交換流血,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5

30) M.M.Pickles : Ha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Springfield In, Thomas, 1949.

31) 許浚 : 前揭書, 雜病篇 4卷 p.608

27) 金宗星 : 前揭書, pp.44~47

28) 教育學辭典編纂委員會 : 教育學大辭典, 서울, 科學社, 1960, p.390

- ⑨ 참새고기와 술을 마시면 자손이 淫亂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며 몸에 斑點이 생긴다.
- ⑩ 자라고기를 먹으면 자손이 목이 짧고 머리가 줄어든다.
- ⑪ 생강뿌리를 먹으면 자손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많아진다.
- ⑫ 울무와 질경이를 먹으면 墮胎한다.
- ⑬ 보리싹을 먹으면 胎氣가 사라진다.
- ⑭ 비듬(菟)을 먹으면 墮胎한다.
- ⑮ 매기를 먹으면 먹기를 좋아한다.
- ⑯ 마늘을 먹으면 胎氣가 사라진다.
- ⑰ 산양(山羊)고기를 먹으면 病이 많다.
- ⑱ 버섯, 겨자, 냉이를 먹으면 驚風이 있고 壽命이 짧아진다.

또한 《胎教新記》에서는 妊婦의 飲食禁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果實의 모양이 바르지 못하고 비뚤어 져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하면 먹지 말고, 腐敗한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지 말며, 色이 추하고 먹을 시기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sup>32)</sup>고 했다. 최근 學界研究에 의하면 妊婦의 營養供給이 妊娠中 疾病의 因子가 되고 胎母가 畸形兒, 未成熟兒를 낳을 可能性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適當한 休息, 規則的 運動, 자유로운 분위기와 더불어 適切한 食事は 胎兒와 胎母에게 至大한 影響이 있다. 飲食에서 特別한 주의는 칼슘, 단백질, 광물질, 비타민 等の 適切한 攝取가 필요하다고 말한다.<sup>33)</sup> 또한 Grow는 妊娠中 胎盤의 胎兒가 非正常的으로 成長할 경우가 있는데 藥物保育에 起因하는 수가 많다고 한다. 丁茶山은 妊娠中 禁忌에 대해

“婦人의 受胎中에는 焉夫同房함을 大忌하며, 婦는 飲酒를 切忌하며 及以酒로 調藥을 勿爲하고 水煎服用이 宜好하니라”고 하여 飲酒 삼가 藥物 사용에 대해 言及하였다. 李東旼氏의 飲食禁忌는 다음과 같다.<sup>34)</sup>

① 孕婦가 게(蟹)足を 먹으면, 胎兒가 橫生한다.

② 受胎中の 婦人은 蓮根을 먹지 말 것.

以上 禁忌된 飲食物을 먹은 結果는 당사자인 胎母에 影響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胎兒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런 禁忌된 飲食物이 한낱 迷信으로 생각하면서도 曷상 受胎中에 있으면 남보다 훌륭한 자식을 갖고 싶은 欲心에서 禁忌를 지키며 努力하는 것 같다. 이런 母性愛는 먹고 싶은 飲食도 禁忌 때문에 참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家族의 協助가 必要하다고 볼 수 있다.

### (3) 情緒調整

情緒的 분위기를 갖출 수 있기까지 우리의 現實은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의(胎母) 노력 없이는 어려우며 역시 家族의 協助가 필요하다고 본다. 《烈女傳》에는 “옛적에 婦人은 妊娠을 하면 寐不則하고 坐不邊하고 立不蹻하며 邪味를 不食하고 歪席에 不坐하며 邪色을 不視하고 淫聲을 不聽하며 經時를 듣고 正事를 말하였다. 그래서 生子를 하니 形容이 端正하고 才能이 過人하더라”<sup>35)</sup>고 하였으니 賢婦人의 자녀는 거의 다 賢哲하였고 聖賢의 母親은 반드시 賢婦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情緒調整이란 氣血循環을 잘 시켜 마음의 安定이 필요하며 適當한 趣味生活(음악감상, 독서, 운동 등)로 자기(胎母) 스스로의 修養에 힘써야 한다는 意味이

32) 師朱堂完山李氏 : 前揭書, p.22

33) Harolds : Text book of Healthful Living, New york, Mogrow-Hill Book 22. 1960, p.258

34) 李東旼 : 前揭書, p.119

35) 李東旼 : 上揭書, p.7



다.

(4) 其他 禁忌사항

受胎中에 삼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어떤 科學的 根據를 찾아 검증된 文獻은 거의 없으므로 事例研究를 통해 각자의 課題로 남겨두고 傳說的인 것이나 整理된 것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sup>36)</sup>

言語와 行動面에서

- ① 타인의 물품을 탐내지 말 것.
- ② 울타리 사이 구멍으로 들여다보지 말 것.
- ③ 기울어진 곳에 앉지 말 것.
- ④ 눈으로 남의 부족함을 보지 말며 어지러운 색깔을 보지 말 것.
- ⑤ 빨래들 위에 앉지 말 것.
- ⑥ 고기 반찬을 먹더라도 꿈지 부분보다 머리 부분을 먹을 것.
- ⑦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 ⑧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 것.
- ⑨ 심한 運動을 삼갈 것.
- ⑩ 行動을 신중히 해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固有의 民俗的인 傳說로 禁忌하는 事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家庭에 있어서의 일 :

- ① 受胎 中에 아궁이를 수리하면 언쟁이를 낳는다.
- ② 房修理를 하면 언쟁이를 낳는다.
- ③ 産母가 田畝이나 路邊에서 放便하면 아이가 食事때에 放便한다.
- ④ 産月에 빨래를 삶으면 아이 피부가 거칠다.
- ⑤ 나막신을 태우면 언쟁이를 낳는다.
- ⑥ 喪家에 가면 不淨을 탄다.
- ⑦ 火災를 보지 않는다. 보면 凶事가 생긴다.

⑧ 殺生을 하지 않는다.

⑨ 産月에 문구멍을 바르면 難産한다.

⑩ 남을 미워하면 그대로 아이를 낳는다.

이상 列舉한 것 중에서 氣血循環, 飲食攝取, 情緒調整은 醫學的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 言及한 事例를 보면 분명히 肯定的 胎敎가 認定되므로 앞으로 어머니가 될 女性들은 여기에 대해 좀 더 많은 研究가 있어야겠다. 또한 이것은 女性들만의 일이 아니라 國家의 未來를 創造하는 後世人을 보다 훌륭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男性들도 이에 적극 協助해야 하며 家族의 도움도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2) 胎敎에 있어서 父親의 影響

胎敎는 母親의 役割로 認知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傳統 胎敎의 내용 가운데는 父親의 役割을 매우 重要하게 다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文獻으로 《胎敎新記》를 들 수 있다. 第1章 只言敎學에서 “스승이 十年을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열달 배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고, 열달 배속에서 어머니가 잘 가르쳐도 아버지가 一日之生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sup>37)</sup> 라고 함으로써 胎兒에 대한 父親의 영향이 막중함을 단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또 胎敎는 君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把握한다. 즉, “君子는 반드시 그 아이 배었을 때에 조심해야 하느니라.”<sup>38)</sup>고 하고 “君子는 이미 胎敎의 이렇듯 分明한 것을 보고도 오히려 行치 않을 수 있겠는가”<sup>39)</sup>라고 하는 등, 君子는 胎敎를

37) 師朱堂 完山李氏：前揭；父生之 母育之 師敎之 一也 善醫者 治於未病 善敎者 敎於未生 故 師敎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

38) 上揭書，第二章

39) 上揭書，第八章

36) 上揭書，p.79

行하는 훌륭한 아버지라야 한다고 거듭 強調한다. 물론 胎敎 내용을 父親의 影響, 母親의 影響으로 明確히 구분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朱貞一은 “胎敎는 女子만이 지킬 일이 아니며 아빠와 엄마가 함께 協力하여 胎中아기를 잘 키우려는 努力에서 여러 가지 攝生을 함께 해야 한다. 서로의 마음이 편하도록 神經을 써 주고 妊娠末期가 되면 서로 合意하여 禁慾生活을 하는 등은 절대 必要한 일인데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sup>40)</sup>라고 表現하고 있다.

(1) 心身管理

어떠한 遺傳因子를 가진 精子를 受胎시키나 하는 것은 父親의 가장 直接的이고도 根源的인 影響이 될 것이다. 人間으로서 아직 조절하기 힘든 未知의 分野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性의 目的이 出產<sup>41)</sup>이었기 때문인지 夫婦交合에 더욱 慎重하였고 性行爲시 건전한 精子의 受胎를 위한 父親의 주의점에 대해 여러 文獻에서 言及하고 있다. 《胎敎新記》에서도 “夫婦되거던 서로 恭敬함으로 상대하고 放蕩하거나 외설함으로 相接하지 말지니 ... 아내의 방이 아니면 처하지 못하며 몸에 病이 있으면 아내 방에 들지 말며, 陰陽이 고르지 못하고 天氣가 예사롭지 않거던 아내 방에 들지 말고 虛慾이 마음에 일지 않게 하고 邪氣가 몸에 들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조심하여 子女를 낳는 것이 父親으로서 道理이니라.”<sup>42)</sup>고 하였

다. 師朱堂 李氏는 “짐승도 암컷이 새끼를 배면 수컷을 멀리하여 새끼를 보호하는데 하물며 사람일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sup>43)</sup>고 하였으며, 《東醫寶鑑》에는 “일단 受胎된 뒤에는 男女의 交合은 禁해야 한다.”<sup>44)</sup>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규태는 “受胎 후에는 禁慾한다. 특히 產月에 行淫하면 아이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sup>45)</sup>고 하였고, 李東旼도 “妊娠中の 엄격한 性生活의 禁止는 실제로 불가능하나 根本은 節度를 지키는데 있다.”<sup>46)</sup>하여 節度 있는 性生活을 勸誘하고 있다. 助產學의 입장에서 妊娠初의 性交는 子宮의 收縮이나 出血로 인한 狀態에서 流產의 原因이 되거나 肢體異常者나 畸形兒가 태어날 수도 있고, 妊娠中 性交로 임질, 매독 같은 齷菌이 傳染되면 胎兒가 死産되거나 精神薄弱兒, 低能兒가 되기 쉬우며, 妊娠末期의 性交는 早産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科學的으로도 지극히 當然하다고 할 수 있으며, 現代醫學과 助產學에서도 밝히고 있다. 또 妊娠中 흥분하면 糞便의 過剩 또는 不足으로 胎兒의 筋肉 및 骨格 형성에 影響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sup>47)</sup> 김태동은 “妊娠中에는 물론 出產前後의 性交에서도 父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sup>48)</sup>고 하였고 주장일도 “이러한 禁慾生

焉 非內寢不敢入處 身有疾病 不敢入寢 身有麻布 不敢入寢 陰陽不調 天氣失常 不敢寢息 使虛慾 不萌干心 邪氣 不設干體 以生其子者 父之道也 時曰 相在爾室 尙不愧干 屋漏 無曰不顯 莫予云觀 神之格思 不可度思

40) 朱貞一 : 子女敎育 에세이, 서울, 배영사, 1980, p.115  
 41) 白庚壬, 朱貞一 : 性敎育, 서울, 샘터사, 1982, p.31  
 42) 師朱堂 完山李氏 : 前掲書, 第一章 只言敎學 ; 夫告諸父母 聽諸媒氏 命諸使者 六體備而後 爲夫 婦曰以恭敬相接 無或以褻狎相加 室宇之下 牀席之上 猶有未出口之言

43) 유안진 : 前掲書, pp.16~17  
 44) 東醫寶鑑 國역위원회편 :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76, p.964  
 45) 이규태 : 서민한국사, 서울, 샘터사, 1979, p.188  
 46) 李東旼 : 胎中敎育, 서울, 흐름사, 1982, p.59  
 47) 유안진 : 前掲書, p.33~34

活은 父와 母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sup>49)</sup>이라고 하여 특히 性交에 있어서 父와 母의 協力を 當부하였다. 위의 내용을 包含하여 《醫心方》과 《東醫寶鑑》, 《千金要方》 등을 살펴볼 때 父親의 直接的인 影響에 대한 禁忌事項은 다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sup>50)</sup><sup>51)</sup><sup>52)</sup> 첫째는 天忌로서 다음과 같이 하늘기운이 예사롭지 않을 때, 夫婦交合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초하루, 그믐, 상현, 하현, 보름, 큰 벼락치는 날, 일식, 월식, 天地가 어두운 날, 지진, 무지개 오를 때 등을 이른다. 둘째는 地忌로서 다음과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장소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즉 日光, 月光, 星光, 밝은 불빛, 祠堂, 寺刹內, 부엌 앞, 변소 옆, 분묘 옆, 시체 옆 등을 이른다. 셋째는 人忌로서 다음과 같이 夫婦가 心身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夫婦交合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술을 많이 마셔 精神이 昏迷할 때, 過食이나 허기질 때, 심한 勞動 후, 피로할 때, 病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목욕 후 수분이 마르기 전, 크게 기뻐했거나 크게 신경을 썼을 때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禁忌는 특히 現代의 男性도 유념하고 지켜야 할 事項으로써 이러한 법도에 따른다면 福과 德性, 그리고, 智慧롭고 모양이 端正한 아이가 태어나고 性品과 行實이 순조롭고 福이 있어 家庭道德이 날로 번창하나, 만약 이 법도를 어기고 몰지각하게 交合하여 생긴 子女는 福이 적고 어리석고 못나서 胎中에서

부터 性質과 行實이 나쁘고 험하고 사나와 家庭 道德이 날로 기울고 궁색하고 허물어 지므로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sup>53)</sup> 禁忌事項에 대한 科學的인 根據는 현재로서는 斷定하기 어렵다. 즉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알콜이 精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몸이 약한 경우나 心身이 비정상적인 상황하의 精子에 대한 科學的인 研究는 단정적인 結論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父親의 경우 피우지 않는 父親의 경우보다 그 부인의 死亡率이 높다. 그 理由는 확실치 않지만 惝연에 의해 精子속에 어떤 미묘한 變化, 어쩌면 顯著한 해로운 變化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推測되는 것이다.<sup>54)</sup> 또한 忿怒나 抑壓같은 心理的 변수가 性호르몬 分泌에 變化를 주고 있으므로<sup>55)</sup><sup>56)</sup> 精子에 이상을 초래할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알콜이 精子에 미치는 미묘한 變化는 알 수 없지만, 飲酒時 受胎된 小兒의 80%가 非正常이었다<sup>57)</sup>고 하는 結果는 알콜이 精子에 이상을 초래할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傳統胎敎의 天忌, 地忌, 등이 肉體的으로 건전치 못하거나 精神的으로 不安한 상황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새롭게 認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父親의 直接的인 影響은 아직 斷定的인 結論이 내려질 段階는 아니지만 科

53) 유안진 : 前揭書, p.31

54) T. Verny : 胎兒는 알고 있다(The Secret of the unborn child), 주정일 감수, 서울, 샘터사, 1983, p.87

55) Marilyn T. Ericson : Child psychopathology assessment, etiology, and treatment, New Jersey, Prentice - Hall, 1978, p. 82.

56) Internation Encyclopedia of Psychiatry Psychologysis and Neurology (N.Y.: Aesculapius Publishers, 1977) "stress" p. 465, 參考.

57) 장세인 : 前揭書, p.44

48) 김태동 : 모성보건의 실제, 서울, 가족계획 연구원, 1973, p.23

49) 주정일 : 아동 발달학, 서울, 교문사, 1980, p.73

50) 장세인 : 천재와 저능아, 서울, 士林堂, 1979, pp.27~31

51) 許浚 : 前揭書, p.153

52) 丁海哲編 : 千金要方, 서울, 文英出版社, 1982, p.1233

學的 根據로 볼 때 心身이 健全치 못한 狀況, 즉 몸에 病이 있거나 술에 몹시 취하였을 때, 심한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아기를 원치 않는 경우 등은 受胎를 피하도록 하는 노력은 父親이 알고 있어야 할 重要한 胎敎의 內容이라 하겠다.

(2) 아내를 위한 協助

妊婦의 情緒狀態가 胎兒에게 미치는 影響이 막중하고, 妊婦의 情緒가 男便과의 關係 역할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면 이것은 父親이 間接的으로 胎兒에게 막중한 影響을 주는 것이 된다. 妊婦의 情緒가 男便과의 關係와 密接함을 오늘날은 물론, 옛 文獻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胎敎新記》에서도 “胎를 기르는 法에는 妊婦 자신 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항상 조심하고 삼가서...”<sup>58)</sup>라고 男便을 包含한 家族들이 妊婦의 情緒安定을 위해 배려해야 함을 이른다. 最近의 研究에서 胎兒에 미치는 父親의 影響중 가장 큰 것으로 妊婦의 情緒에 대한 지원을 꼽고 있다. T.Verny는 胎兒에게 미치는 肉體的, 精神的 障礙의 최대 원인은 불행한 結婚生活이라고 한다. 또 스포크 박사의 研究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安定된 關係에 있는 夫婦에 비해 적대시하고 싸움만 하는 夫婦에게는 肉體的 精神的으로 障礙가 있는 아기가 태어날 위험이 약 2.5배나 높

다고 한다. 또한 태어날 아기가 恐怖心에 사로잡히는 빈약하고 신경질적인 아기가 될 確率이 5배나 된다.<sup>59)</sup>고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繁多進도 “胎兒에 대한 기대나 不安의 감정을 男便과 나누는 妻는 幸福하며 不安이 輕減되고 기대가 커진다. 不安을 이해해 주지 않는 男便을 가진 妊婦는 아기를 갖는 기대보다 자신은 건강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不安과 出産後의 敎育에도 여러 가지 不安을 增大시킨다.”<sup>60)</sup>고 한다. 《胎敎新記》는 妊婦가 지켜야 할 胎敎에 관하여 쓴 古今 獨步의 名著이자 珍書이다. 이는 淑人 師朱堂 李氏가 二天年來 胎敎에 對한 敎本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널리 經書와 百家書를 섭렵하고, 자신이 一男三女를 胎敎한 경험을 살려 著述하였다. 《閩閣叢書》는 朝鮮時代 婦女子를 위한 生活指針을 엮은 책으로 閩秀文學의 傑作이라 할 수 있다. 著者인 憑虛閣 李氏 婦人은 숙달된 漢學의 소양으로서 우리의 家庭生活에 좀더 法度와 良識을 바로잡아 後世까지 傳하고 天文地理, 鳥獸草木에 이르기까지 家庭을 상대로 누구나 들치면 환히 알도록 순수 우리말로 知識을 부어주고 同時에 生活指針이 되도록 쓴 것이 《憑虛閣全書》로 三十一卷에 나누어 著述하였다. 胎敎에 關係된 기록은 卷之四 靑囊訣에 胎敎, 養兒, 救急, 雜著 등의 項目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保健, 醫療, 厚生 등에 대한 記錄이 구비되어 있다.<sup>61)</sup> 《增補山林經濟》는 朝鮮 英祖 42年(1776年)에 柳重臨이 당시 刊行되어 전해오던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다 소루한 部分을 부문별로

58) 師朱堂 完山李氏 : 前揭書, 第四章 胎敎之法; 태랄 가난한 자 몸 스서로 할 뿐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상해동동 조심하여 감히 분한 일로써 들이지 못하나니 그 성내일가 저흠이오 감히 흥한 일로써 들이지 못하나니 그 두릴가 저흠이오 감히 난처한 일로써 들이디 못하나니 그 근심할가 저흠이오 감히 급한 일로써 들이지 못하나니 그 놀널가 저흠이라. 성내면 자식으로 하여금 피가 병들고 두리면 자식으로 하여금 정신이 병들고 근심하면 자식으로 하여금 괴운이 병들고 놀내면 자식으로 하여금 간질바람 하나니라.

59) T.Verny : 前揭書, p.43

60) 繁多進 : 父親のやるべきこと則, 동경, サシマーク出版, 1983

61) 憑虛閣 李氏 : 閩閣叢書, 寶晉齋, 1988

增補 간행한 農事要訣書로서 全 16卷 12冊으로 博物紙의 성격을 띤 文獻으로 徐有桀의 《林園十六志》에 影響을 끼친 책이다. 胎敎에 관련된 내용은 8, 9冊 家政편에서 볼 수 있다. 특히 《求嗣條》에서는 子息을 얻는 方法을 言及하고 있는데 아들을 잘 낳을 수 있는 女人을 아는 法, 아들을 낳을 수 있는 藥方文, 孕胎의 時期, 아들을 낳을 수 있는 體位法, 胎兒의 性을 미리 아는 法, 女胎를 男胎로 變化시키는 법,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sup>62)</sup> 비록 오늘날 보기에 科學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意味가 있으며 특히 孕婦의 健康을 위한 藥方文이나 禁忌事項等은 오늘날에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 Ⅲ. 結論 및 考察

#### 1. 胎敎의 概念

胎敎라 하면 一般的으로 胎兒가 母胎內에서 受胎되어 出産할 때까지 成長하는 동안의 敎育을 意味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史的 考察을 통한 事例研究의 結果 胎敎란 受胎期間(妊娠된 狀態)뿐만이 아니라 受胎되기 훨씬 前(約 100日로 함)부터 이미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胎敎란 受胎前, 受胎時, 受胎中(妊娠된 期間)에 장차 受胎될 아가나 이미 受胎된 아기를 위해서 父母가 준비하는 敎育活動 全部를 胎敎라 할 수 있다. 受胎前과 受胎時엔 父母가 같이 胎敎에 協力할 일이며 이미 受胎되었을 때는 주로 어머니만의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나 家族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들이 많으므로 주위의 協力이 반드시 必要하다. 이것을 方法的으로 分類해 보면 受胎前은 象的인 것, 受胎된 狀態(妊娠中)는 形態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2. 胎敎의 重要性

文獻研究에서 胎敎의 事例를 살펴 본 結果, 胎敎가 肯定되었고 또 이것이 出生後 우리 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알 수 있었다. 胎敎의 重要性에 대해서 李東旼씨의 事例研究는 어떤 意味에서 볼 때 非科學性을 띠고 있지만 그는 分明히 妊娠時의 모든 일들이 영사기의 필름처럼 胎母에 찍혀 있다가 胎兒의 將來에 影響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東醫寶鑑》에 나타난 胎敎觀에서도 陰陽의 理論으로 보면 人體는 하나의 小宇宙와 같아 胎兒의 成長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는 理論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眼目으로 놓고 研究問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3. 胎敎의 方法

아무리 胎敎의 必要性을 느낀다 해도 그 實踐方法이 좋지 못하면 實效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胎敎의 方法을 셋으로 분류하면 受胎前(約 100日前)과 受胎時 受胎中(妊娠 280日 정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受胎前에는 마음의 준비(계획, 기원 등)와 자신의 健康과 修身이 필요하며, 受胎時에는 나쁜 것, 나쁜일을 연상해선 안되고, 좋은 것이나 좋은 일만으로 마음의 姿勢를 바로해야 되며, 또한 날씨 및 周圍 環境에 고려해야 한다. 受胎 期間에 가장 중요한 胎敎 方法은 氣血循環이며 그밖에 言語, 行動삼가, 착한 마음가짐, 기원, 夫婦關係의 삼가, 情緒調整 등을 잘 考慮해야 한다.

62) 유중립 : 增補山林經濟, 민족문화원고, 1988

그것을 하나의 歷史的 考察이나 傳說的인 迷信으로만 斷言 하기엔 輕率한 판단이므로 좀 더 研究해 볼만한 問題임에 틀림없다.

#### IV. 參考文獻

1.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1.
2.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5.
3. 李東旼 : 胎中教育, 흐름사, 1979.
4. 憑虛堂李氏原著 : 閩閩叢書國譯, 寶晉齋, 1975.
5. 宋時烈 : 戒女書, 서울, 齊文堂, 1978.
6. 謝觀 :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75.
7. 師朱堂完山李氏 : 胎教新記意譯, 韓載傑譯, 영인본.
8. 李珥 : 栗谷集, 全2卷, 서울, 민족문화추진위, 1968.
9. 李東旼 : 心磨胎中教育, 서울, 研究社, 1970.
10. 金宗星 : 健康과 長生, 서울, 장문사, 1973.
11. 金駿煥 : 小學原本集註, 서울, 덕흥서람, 단기4289.
12. 教育學辭典編纂委員會 : 教育學辭典, 서울, 교육과학사, 1960.
13. 學園社 : 家庭醫學大典, 서울, 學園社, 1971.
14. 李殷相 : 사임당과 울곡, 서울, 成文閣, 1973.
15. 李光珠 : 元曉大師, 서울, 경향신문사, 단기4289.
16. 孫思邈 : 千金方, 서울, 大成出版社, 1984.
17. 陳自明 : 婦人良方大典, 서울, 金泳出版社, 1975.
18. 陳言 : 三因方, 中華, 合聯國風出版社, 1978.
19. 萬全 : 婦人秘科(屬醫部全錄), 藝文印書館印行.
20. 王肯堂 : 女科準繩, 宇宙醫藥出版社, 1962.
21. 吳謙 : 醫宗金鑑, 서울, 醫道韓國社, 1975.
22. 金蒙禮 等 : 胎產救急方(醫藥類聚中), 서울, 東南出版社, 1983.
23. 金富軾 : 三國史記, 일조각, 1960.
24. 유안진 : 韓國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 정민사, 1982.
25. 金熙了 : 胎教論,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26. 金啓淑 : 韓國既婚男女의 胎教研究(도시, 농촌을 중심으로),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27. 鄭貞惠 : 韓國 傳統社會의 胎教에 關한 考察(胎教新記를 중심으로),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28. 夏彩嬉 : 朝鮮時代 胎教思想과 그에 나타난 女性教育에 대한 研究(胎教新記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29. 崔京玉 : 胎教에 關한 探索的 研究,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30. Gilbert Gottlieb : Early Influence, Volume 4, Academic Press, New York San Fransisco London.
31. Janov, Arthur : The Feeling Child, N. Y. Simon Schuster, 1973.
32. Alison Clarke Stewart, Joanne Barbara Koch : Children Development Through Adolescence,

John Wiley & sons, Inc, 1983.

33. Biehler, R, F : Child Development  
on Introd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